

「2023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백일장 분야

작품 제목

정직의 등산로

작품 본문

이 세상을 떠도는 구름들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준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가 울 때 웃을 때 등 언제나 구름은 내 옆에 있어 주었다. 구름은 오늘 무엇에 대해 이야기 해줄까? 오늘 구름이 할 이야기는 '정직'이다.

그리고보니 정직이란 나의 삶에서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시험을 볼 때 베끼지 않는 것? 탐나는 것이 있어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과연 나는 얼마나 정직했는지 구름을 타고 가보아야겠다. 정직하지 않았던 과거가 있으면 부끄럽게 여겨야되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구름을 탔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다. 그 시절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게 다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해 베끼지 않았다. 어느 도덕성 실험에서 베끼지 않은 아이들이 베끼는 아이들보다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걸 통해서 지금에 내가 점수를 못 받아도 미래에선 마음 속에서는 정직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겠지?

두 번째 구름은 내가 정직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학 시간. 모두가 같이 하는 수학 익힘을 풀 때 나 혼자 먼저 풀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친구들보다 먼저 자유시간을 가졌었을 때 쉬니깐 좋았지만 마음은 불편했었다. 정직하지 않으면 마음에 정직하지 않았던 못이 박혀 계속 고생을 했었을 것 같다.

마침내 구름을 타고 가니 종지와 펜, 그리고 지우개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웠고 느꼈는지를 쓰란 말과 함께 구름은 사라졌다. 지금까지 정직했던 행동과 정직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모두 보면서 난 무엇을 느꼈을까?

정직이란? 지키기는 힘들지만 지키면 뿌듯하고 마음이 활가분해지는 것이다. 정직이라는 물에 약한 마음이라는 잉크가 떨어진다. 그 물은 정직이라는 걸 몇 억개를 해야 사라지지만 약한 마음은 거기서 번지기 마련이다. 우리 마음 속에는 잉크가 가득 퍼져 있을까?

정직하지 못하는 행동은 그 순간 잘나고 빛날 수는 있지만 평생 정직하지 않았다는 눈덩이를 가지고 산다. 눈덩이는 눈을 만나면 커지고 무거워진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서 항상 눈덩이를 가지고 다닌다. 그 눈덩이를 잠시라도 멈추려면 정직한 행동과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한다.

그러면 눈덩이는 멈출 거다. 그리고 마음은 편안해진다.

어쩌면 정직은 나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정직의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 좋고 마음씨가 착할 거다. 또 정직의 얼굴이 못생기면 성격이 나쁘고 마음씨가 나쁠 거 같다. 하지만 정직의 얼굴은 실제 얼굴과는 관련이 없다. 오로지 그 사람의 마음만이 정직의 얼굴을 만든다. 그래서 정직의 얼굴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사람들,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말이다.

우린 우리가 가야하는 정직의 등산로에 길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직의 등산로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우린 그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정직'이라는 우리에게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 난 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고 이제 우리가 그 등산로를 잘 가꾸어 주어야 한다. 딱 길로 새지 않게 오직 정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가야한다. 아무거에도 휘말리지 않고 오직 정직을 위해 다른 사람들도 약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말이다. 우리 모두 정직의 등산로를 가꾸어야한다.